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인터넷 보도의 특성을 통해 본 한약 부작용 관리 체계 확립의 필요성

전천후¹⁾²⁾ · 박정수¹⁾²⁾ · 박선주¹⁾²⁾ · 권기태³⁾ · 신용철²⁾ · 고성규^{1)2)*}

¹⁾경희대학교 한의학임상연구 및 유전체센터,

²⁾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³⁾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산업과

Necessity of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through the Trend of Internet News about Safety of Herbal Medicine

Chunhoo Cheon,¹⁾²⁾ Jeong-Su Park,¹⁾²⁾ Sunju Park,¹⁾²⁾ Kee-Tae Kweon,³⁾
Yongcheol Shin²⁾ & Seong-Gyu Ko^{1)2)*}

¹⁾Kyung Hee University Center for Clinical Research and Genomics,

²⁾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³⁾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Office for Healthcare Policy Division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dustry

Abstract

Objective: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trend of internet journalism about the toxicity and safety of the herbal medicine, and to suggest the regulatory solution of the issue.

Method: In this study, we had searched the internet news article published from 2001 to 2011 in the five major portal sites-NAVER, DAUM, Nate, Google Korean, and Yahoo Korean. The search terms were 'herbal medicine', 'adverse event', 'toxicity'. If the articles described the same event in the same form and tone, the articles were considered overlapping. The overlapped articles were excluded. The articles were categorized by the form and tone. The form categories were straight news, interpretative story, editorial, interview, and the tone categories are the positive, the negative, and the neutral. The regulations were searched about the negative issue.

Result: Total 56 articles were reviewed. There were 19 positive articles, 29 negative articles, 8 neutral articles. Most negative issues have the proper regulations, but insufficient measures for the adverse event

· 접수: 2011년 8월 10일 · 수정접수: 2011년 8월 23일 · 채택: 2011년 8월 24일

* 교신저자: 고성규, (130-872)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전화: 02-961-0329, 팩스: 02-966-1165, 전자우편: epiko@khu.ac.kr

reporting system.

Conclusion : The herbal medicine specified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is essential.

Key words : internet news, toxicity, safety,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herbal medicine

1. 서론

언론 매체는 종이 신문 및 텔레비전 뉴스 등을 지칭하였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으로 인터넷 매체 또한 언론 미디어의 하나로 대두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는 자체로 정보를 생산하는 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언론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뉴스 웹사이트 이용에 대한 권상희 등의 연구¹⁾에서 언론 수용자들의 인터넷 언론의 사용 형태는 포털 사이트 31.4%, 신문사 웹사이트 28.9%, 방송사 웹사이트 25.1%, 인터넷 언론사 웹사이트 14.6%로 포털 사이트 이용이 가장 많았다. 기존 언론 매체와의 비교에서도 포털 사이트 뉴스 서비스는 우위에 있다. 반현 등의 연구²⁾에서 20~30대 남녀의 뉴스 이용 행태를 조사한 결과 신문 및 텔레비전 뉴스, 인터넷 신문과 비교하여 포털 사이트 뉴스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포털 미디어는 기존의 종이 신문 및 텔레비전 등의 기성 매체 언론과 인터넷 언론 등에서 생산하는 뉴스를 재매개(re-mediation)하는 독특한 방식의 저널리즘 형식을 가지고 있다.³⁾ 즉, 포털 사이트는 각 언론사에서 뉴스를 제공하면 그 뉴스를 재편집하는 게이트키퍼(gate keeper)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하루 30~100여 개의 신문사, 통신사, 방송사, 인터넷미디어가 3천~1만여 건의 기사를 공급하고 있다.⁴⁾ 포털 사이트는 신문, 방송과 같은 전통적인 언론 매체와 비교하여 실시간으로 뉴스를 업로드할 수 있는 속

보성 및 검색을 통해 원하는 뉴스에 접근할 수 있는 편리성, 다양한 콘텐츠 및 댓글 등을 통한 뉴스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성을 바탕으로 그 영향력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⁵⁾

반면 포털사이트를 제대로 된 언론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뉴스를 생산하지 않고 재편집, 재매개만 하는 포털이 진정한 언론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또한 네이버를 소유하고 있는 NHN이 뉴스 캐스트 형식으로 뉴스서비스를 전환하면서 언론사닷컴들의 생존 경쟁이 날로 치열해져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하는 더욱 선정적이면서 저널리즘의 기능에 역행하는 뉴스 편집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⁶⁾ 하지만 포털 사이트는 뉴스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회원 등록을 하여 무료 메일서비스 및 커뮤니티 서비스, 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서핑의 관문이 되며, 사회의 주요 이슈를 전달하는 첫 번째 매체의 역할을 하고⁷⁾ 이슈의 파급 측면에서는 기존 언론 매체와 비교하였을 때에 월등하다.⁸⁾ 검색 서비스와 뉴스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편리성으로 인해 포털 사이트에서는 의료 정보 검색도 빈번하다. 장성운의 연구⁹⁾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구대상자들의 67.2%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의료 정보를 얻었다.

한약 및 한약재는 동식물 등 자연 유래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한약 혹은 한약재 복용으로 인한 급성 간염 발생 및 중금속에 오염된 한약재 등 한약의 독성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한약 복용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킬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는지는 미지수이다. 적절

한 대책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슈는 한약의 안전성을 호도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주요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페이지에서 한약의 독성 및 부작용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검색하여 한약 안전성에 대한 언론 보도의 특성을 살펴보고, 인터넷 언론으로 대두된 이슈가 어떠한 정책으로 이어졌는지를 고찰하여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자료

점유율 기준 상위 5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NAVER)와 다음(DAUM), 구글 코리아(Google), 네이트(NATE), 야후 코리아(Yahoo)를 검색 대상 포털 사이트로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웹 사이트 분석 평가 서비스 업체인 InternetTrend™(www.internettrend.co.kr)의 분석 리포트를 참고하였다.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위 다섯 개 포털 사이트는 검색엔진 점유율 99.21%, 뉴스 & 미디어 카테고리 점유율 99.98%를 차지하였다. 각 포털 사이트별 검색 점유율 및 뉴스 점유율은 <Table 1>과 같다. 각 포털 사이트의 순 방문자수(Unique Visitor, UV)는 코리안클릭(www.koreanclick.com)의 2011년 6월 보도자료를 참고하였다. 각 포털 사이트의 순 방문자수는 NAVER 31,126,871명, Daum

28,803,038명, Google Korea 9,077,873명, NATE 24,051,265명, YAHOO Korea 11,793,851명 이었다.

‘한약’, ‘부작용’, ‘독성’의 세 가지 검색어로, 선정된 5개 포털 사이트의 뉴스 항목에서 검색하였다. 검색 기사의 범위는 보도일을 기준으로 한약 안전성 문제에 대한 기사가 처음 제기된 2001년부터 2011년 6월까지로 하였다.

검색 결과 중 부작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사는 배제하였다. 검색 결과에서 중복된 기사는 제거하였다.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시각, 동일한 형식으로 서술한 경우 중복 기사로 간주하였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루었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 경우는 중복된 기사로 보지 않았다. 총 879건의 검색결과에서 중복 제거 후 56건의 기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부 등의 법령 및 제도를 조사하여 대응 현황을 파악하였다.

2. 조사변수

기사 분석을 위해 주요 변수로 설정한 항목은 기사의 형식, 기사의 주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시각이다.

기사의 형식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보도 기사, 사건의 주변적인 이야기나 추가적인 설명을 담고 있는 해설 기사, 사건이나 상황을 평가하며 주장

Table 1. 검색 대상 상위 5개 포털 사이트

순위	도메인 주소	검색 점유율	뉴스 점유율	순 방문자
1	www.naver.com	66.34%	36.68%	31,126,871
2	www.daum.net	23.65%	60.16%	28,803,038
3	www.google.co.kr	4.29%	2.12%	9,077,873
4	www.nate.com	3.14%	0.16%	24,051,265
5	kr.yahoo.com	1.79%	0.86%	11,793,851
합 계		99.21%	99.98%	104,852,898

Table 2. 검색 및 중복 제거 전략

검색어	한약, 부작용, 독성	
기사의 형식	보도	객관적인 사실 혹은 사건 전달
	해설	사실 혹은 사건 보도 및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의견	사실 혹은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인터뷰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기사의 어조	긍정	한약 혹은 한약재의 안전성을 부각시킨 경우
	부정	한약 혹은 한약재의 독성 혹은 부작용을 부각시킨 경우
	중립	한약 혹은 한약재의 안전성 및 독성 양쪽을 모두 다룬 경우
중복제거	동일 사건에 대한 동일 형식, 동일 시각인 경우 중복 기사로 간주	

을 펴는 의견 기사, 인물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담은 인터뷰 기사의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¹⁰⁾

한약을 보는 시각은 Henard¹¹⁾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긍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누었고, 중립적인 시각을 추가하였다. 긍정적인 시각은 특정 조직이나 개인에 대한 평판을 증진시키는(praising) 정보이고, 부정적인 시각은 특정 조직이나 개인에 대한 평판을 떨어뜨리는(derogatory)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약 혹은 한약재가 안전하다는 것을 부각시킨 경우 긍정적인 시각, 한약 혹은 한약재의 독성 혹은 부작용을 강조하여 한약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정적 시각, 한약 혹은 한약재의 안전성 및 독성 모두를 다룬 경우를 중립적인 시각으로 구분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통계프로그램 PASW ver.18을 이용하였으며, 각 변수의 분포와 평균,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도별 기사 수의 변화

한약의 독성, 부작용과 관련된 기사 수의 연도별 변화는 <Table 3>과 같다. 2001년에 1건, 2002년과 2003년에 0건, 2004년에 3건, 2005년에 7건, 2006년에 7건, 2007년에 4건, 2008년에

Table 3. 연도별 기사 수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합계	%
시각	긍정	0	0	0	2	2	3	1	2	4	1	4	19	33.9
	부정	0	0	0	1	2	3	3	7	3	6	4	29	51.8
	중립	1	0	0	0	3	1	0	1	0	2	0	8	14.3
	합계	1	0	0	3	7	7	4	10	7	9	8	56	100.0
형식	보도	0	0	0	1	6	5	1	3	2	4	4	32	57.1
	해설	0	0	0	0	0	0	2	0	2	3	0	7	12.5
	의견	1	0	0	2	1	0	0	1	3	2	4	14	25.0
	인터뷰	0	0	0	0	0	2	1	0	0	0	0	3	5.4
	합계	1	0	0	3	7	7	4	10	7	9	8	5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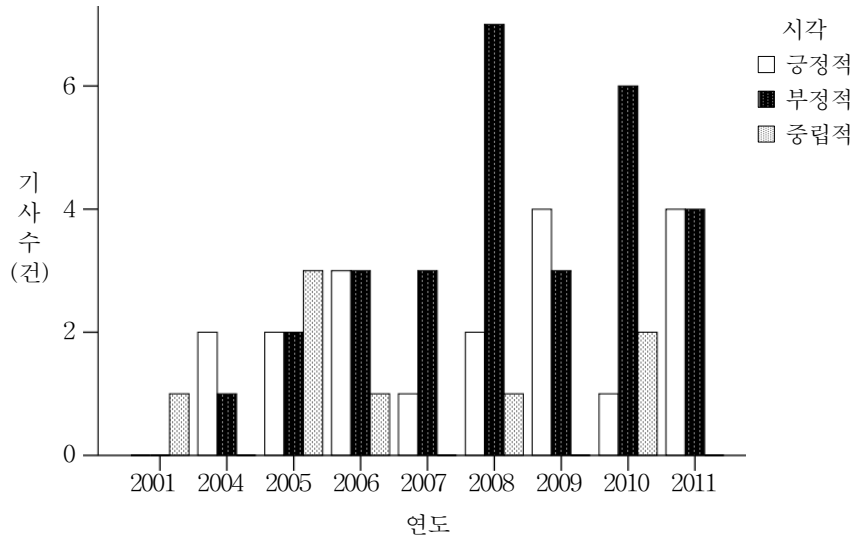


Fig. 1. 연도별 기사 수의 변화

10건, 2009년에 7건, 2010년에 9건, 2011년 6월 까지 8건으로 총 5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연도별 기사 시각의 비율은 매년 달라졌으나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기사 비율이 높았다. 연도별 기사 형식의 비율도 일정치 않았으나 전체 기사의 57%가 보도기사의 형식을 취하였다.

2. 기사의 시각과 형식에 따른 분류

기사가 한약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시각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인 기사로 분류하였는데 긍정적인 기사가 19건(33.9%), 부정적인 기사가 29건(51.8%), 중립적인 기사가 8건(14.3%)이었다. 연도에 따른 기사 시각의 비율은 <Fig. 2>에 나타내었다. 기사 형식에 따라 나누었을 때는 보도기사가 32건(57.1%), 해설기사가 7건(12.5%), 의견기사가 14건(25%), 인터뷰기사가 3건(5.4%)이었다. 긍정적인 기사 19건은 보도 기사 5건, 의견기사 11건, 인터뷰 기사 3건이었고 부정적인 기사 29건은 보도기사가 21건, 해설기사 6건, 의견기사 2건이었다. 중립적인 기

사는 보도기사 5건, 해설기사 1건, 의견기사 1건 이었다<Fig. 3>.

3. 제기된 문제점과 관련 정책

한약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크게 유통 단계와 사용 단계로 구분된다. 유통 단계에 해당하는 문제는 한약재 유통 관리와 한약재 오염 등이고, 사용 단계에는 약재의 식품 사용, 비전문가의 불법판매, 한약 부작용 발생 등이 해당한다. 각 단계에 대해 언급한 기사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이 중 기사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를 언급한 것은 한약재의 유통 관리, 한약재 오염 문제, 약재의 식품 사용, 비전문가의 불법 판매, 한약의 부작용 등이었다. 각 이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유통 단계에서 한약재 유통 관리에 관한 문제는 2005~2008년에 기사화 되었는데 2005년에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자를 한약재의 용기와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였고 2008년에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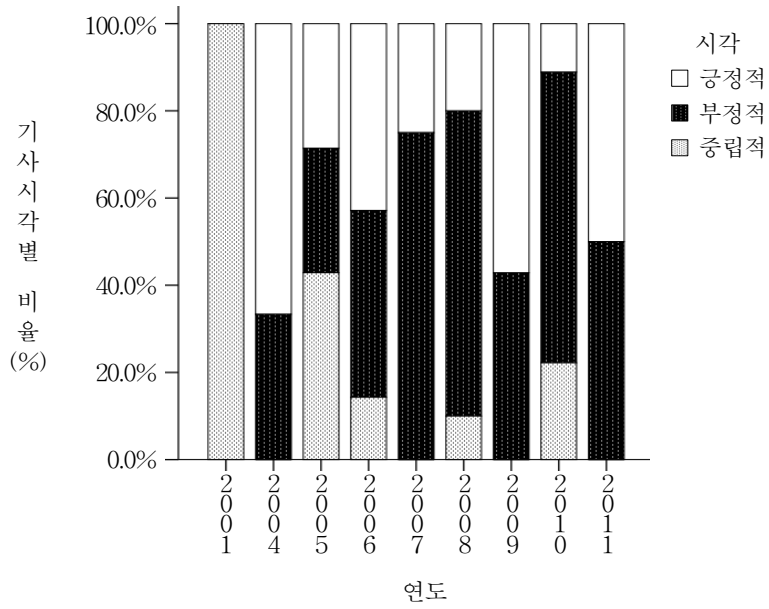


Fig. 2. 연도별 기사 시각 비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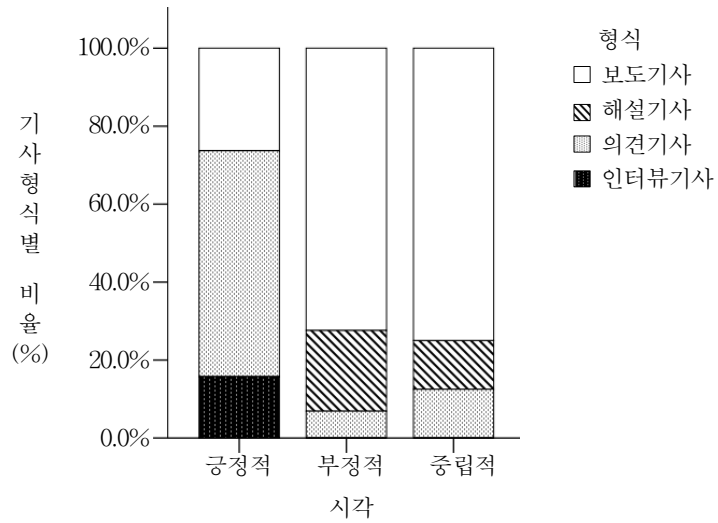


Fig. 3. 기사 시각에 따른 기사 형식 비율

Table 4. 제기된 문제점에 따른 기사 분류

	문제점	기사 제목
유통 단계	한약재 유통 관리	서울시내 한약재 관리 엉망 ¹²⁾ 독성 한약재 관리 ‘맹탕’ ¹³⁾ ‘주사’ 들어간 금지 한약, 불법 유통 ¹⁴⁾
	한약재 오염	중국산 불량 한약재, 가짜 원용(녹용)범람 보약도 마음 놓고 못 먹나 ¹⁵⁾ 시판한약 “중금속 범벅” 수은, 납 등 ... 코카인도 검출 ¹⁶⁾ 이번엔 ‘중금속’ 中 한약재 ¹⁷⁾
사용 단계	약재의 식품 사용과 비전문가의 불법판매	독성 한약재로 식품 제조 ¹⁸⁾ 한약재를 변비차로 속여 판매한 업자 적발 ¹⁹⁾ ‘독성’ 지네 식품, 먹으면 안돼요! ²⁰⁾ एं터리 한약제조... 부작용 나면 “치유 과정이다” ²¹⁾
	한약 부작용	한약 무턱대고 먹다간 부작용 큰 코 다친다 ²²⁾ 생약 ‘독성간염 유발’ 논란 ²³⁾ ‘한약과 간독성 상관없다’ 논문 잇따라 ²⁴⁾ “한의사도 부작용 보고 안하는 실정” ²⁵⁾ 비만 치료제 복용 환자 60% 이상 부작용 경험 호소 ²⁶⁾ 한약과 양약 함께 복용시 건강에 독 될수도 ²⁷⁾ 다이어트 한약 주원료 ‘마황’ 독성 확인.. “귀가 죽을 정도” ²⁸⁾ 빈발하는 독성 간염 주의하세요 ²⁹⁾ 의료일원화특위 “한약재 안전성, 식약청이 밝혀라” ³⁰⁾ 한약 부작용 설명 없으면... “한의사 책임” ³¹⁾ 한약 부작용에도 계속 복용시켜... 결국 환자 사망 ³²⁾ 한약 부작용 마냥 방치 ³³⁾ 위험한 한방...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³⁴⁾ ‘다이어트 한약’ 복용 후 급성간염 ³⁵⁾ 살 빼려다 급성 간염?... 전화로 짓는 ‘다이어트 한약’ 주의보 ³⁶⁾

하여 중독 우려 품목 20개에 대하여는 “중독우려한약”이라는 문자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한약재 잔류·오염물질은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잔류이산화황, 벤조피렌이 있다. 각각의 허용 기준은 중금속과 잔류농약 1995년, 잔류이산화황 2005년, 곰팡이 독소 2008년, 벤조피렌이 2009년에 제정되었다. 2009년에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이

제정되면서 그 안에 포함된 「생약 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이 폐지되었고 2010년에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하면서 포함된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도 폐지되었다. 또한 2010년에

Table 5.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행 제도 현황

문제점		시행 제도	
유통 단계	한약재 유통 관리	2005년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 규정」 제정 용기 또는 포장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자를 기재할 것.
		2008년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 규정」 개정 중독우려품목*인 경우 “중독우려한약”이라는 문자 표기
	한약재 오염	1995년	중금속, 잔류 농약 허용 기준 제정
		2005년	잔류 이산화황 허용 기준 제정
		2008년	곰팡이 독소 허용 기준 제정
2009년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 벤조피렌 허용 기준 제정		
2010년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수입한약재 정밀검사 대상을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전 품목으로 확대		
사용 단계	약재의 식품 사용 비전문가의 불법판매	식·약 공용 한약재 품목 189종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2장 의료인 제 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 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한약 부작용	약사와 한약사는 부작용 발생 시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약사법 제 21조) 한약 조제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한의사에게는 보고 의무 규정 없음	

*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옹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

수입한약재 정밀검사 대상을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전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한약재 오염과 관련된 문제가 기사화된 2006~2008년 이전부터 관리가 이루어졌고 기사의 내용도 대부분 검사하면서 오염물질의 양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한약재가 적발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사용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식·약 공용 한약재 품목 지정, 의료법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약사법의 약사와 한약사의 부작용 보고 의무 외에 보도 이후 추가적으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정책은 없었다.

IV. 고찰

2001년 2011년 6월 30일까지 다섯 개의 포털 사이트에서 한약의 독성과 부작용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한 결과 총 5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29건의 부정적인 기사 중 21건이 보도기사, 6건이 해설기사이고 의견기사는 2건인 반면 19건의 긍정적인 기사 중 11건이 의견기사, 3건이 인터뷰기사이고 보도기사는 5건이었다. 부정적인 기사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거나 그것에 설명이 더해진 보도기사와 해결기사가 대부분인데 반해 긍정적인 기사는

필자의 주장을 드러내는 의견기사와 인터뷰 기사가 대부분이다. 이는 한약의 독성과 부작용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한약 안전성을 확인 시켜주는 경우는 드물다는 방증(傍證)이다.

유통단계와 사용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기사를 비교해보았을 때,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룬 기사가 3배 정도로 많았다. 한약 및 한약재 안전성 관련 시행제도를 정리한 <Table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안전성 관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행 제도가 존재하고 개정되어 왔다.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수입한약재 정밀검사 대상 전 품목으로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한약재는 식품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판매 과정에서 일반인 구입을 규제할 수 없다. 아직 불완전하지만 현재 발의된 상태인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정책이 추가적으로 시행된다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한 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한 식·약 공용 한약재 품목은 189종으로 중국과의 공통품목은 75종에 불과하다. 이는 너무 많은 한약재가 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한약재는 전문 한의사의 처방 없이 먹어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비전문가에 의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약재 안전성 연구를 통하여 식·약 공용 한약재 품목을 재분류 하고 한약재가 전문 한의사의 처방을 거쳐야 안전함을 홍보하고,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의계의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한약 및 한약재 부작용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약인성 간염(Drug-induced liver injury)이다. 포털 사이트에서도 ‘생약 독성간염 유발

논란’,²³⁾ ‘한약 부작용 마냥 방치’,³³⁾ ‘한약 부작용에도 계속 복용시켜... 결국 환자 사망’³²⁾ 등 약인성 간염에 대한 기사를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의계의 대처는 초보적인 수준이다. 한의사가 작성한 ‘한약과 간독성’³⁷⁾ 기사에서는 한약은 안전하고 오히려 약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한약 복용 후 간독성이 발생한 경우는 환자가 간염이 있었거나 무자격자가 처방했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한약은 간에 나쁘다구요?’³⁸⁾ 라는 기사에서는 한약이 간독성이 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며 오히려 한약은 간염에도 효과가 좋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과는 달리 한약재 중 작약이나 마황, 소시호탕 등은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³⁹⁾ 2004년 김동준 등의 연구⁴⁰⁾에서 76명의 약인성 간염 환자 중 57.9%가 한약 혹은 한약재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도 약인 이상 부작용 발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문제는 부작용 발생이 아니라 부작용 관리이다. 무작정 한약이 안전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한약에 대해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는지, 한약이 약인성 간염의 원인인지 이후 환자의 상태는 어떻게 변하였는지 등에 대한 적절한 연구가 필요하다. 장기간의 한약투여가 간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윤여광 등의 연구,⁴¹⁾ 1개월 이상 한약을 복용한 101명의 간기능 검사에 대한 김동민 등의 후향적 관찰연구,⁴²⁾ 한약 복용이 간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윤영주 등의 전향적 다기관 예비연구⁴³⁾ 등이 이러한 연구의 예이다. 한의사는 임상 자료를 토대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인 임상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임상 근거들을 한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도 ‘한약 부작용 설명 없으면 한의사 책임’³¹⁾ 등의 불필요한 한약 안전성 관련 이슈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약 및 한약재의 부작용이 이슈가 된 데에 비하여 체계적인 부작용 관리 체계는 미흡하였다. 약물 부작용을 식품의약품 안전청 홈페이지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인지하고 있는 의사 및 한약사는 극히 드물다. 2007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약취급집단인 의사, 약사 및 한약사, 환자 그리고 생약제제 취급 제약회사 근무자 총 3,6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5%가 부작용 발생 후 자료수집에 대해서는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3%만이 약물부작용 보고접수처를 인지하고 있으며 그 중 50%만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⁴⁴⁾ 한국에서는 자발적인 부작용 보고에 의존하고, 이마저도 양약에 적합한 보고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어떠한 약물에서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는지를 공개하지 않아 체계적인 부작용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미국에서는 약물로 인한 독성 간염을 관리하는 DILIN(Drug-induced Liver injury network),⁴⁵⁾ 홍콩에서는 한약 및 한약재에 특화된 HILIN⁴⁶⁾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도 이러한 부작용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한약 및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한 인터넷 기사는 긍정적인 시각에 비해 부정적인 시각이 현저하게 많지는 않다. 하지만 Dennis 등의 연구⁴⁷⁾에서 나타나듯이 대중은 부정적인 뉴스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이슈에 대한 적절한 대책 없이 이러한 기사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는 그 분야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 한 예로 마황에 대한 기사를 들 수 있다. 마황의 독성이 2011년 4월 18일에 이데일리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주원료 ‘마황’ 독성 확인. “취가 죽을 정도”」라는 제목으로, 같은 날 CNB 뉴스를 통해서 「다이어트 한약재 ‘마황’ 독성 확인... ‘사망률 높아져」⁴⁸⁾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장인수 등의 연구⁴⁹⁾에 따르면 이는 지나치게 선정적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마황을

‘미국에서 수십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위험한 약재’라고 소개하거나 ‘치명적인 간독성이 있으며,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한 약’이라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마황의 주성분인 ephedrine은 미국과 국내에서 감기약으로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에서도 쓰이고 있는 성분이다. 마황에 대한 부작용 관리 및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채 선정적인 보도만 이어진다면 마황 사용 자체를 기피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본 논문의 제한점으로는 기사의 출처가 되는 언론사의 영향력 및 인지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결과로 나오는 기사 외의 결과물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 삭제되거나 변형된 뉴스를 추적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포털 사이트의 가장 큰 특성 중의 하나인 메인 페이지 뉴스박스 게재로 인한 효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등으로 인한 효과 및 댓글 등의 상호작용, 관련기사 등은 살피지 못하였다는 점 등이 있다. 향후 이러한 부분을 보완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한약 및 한약재 관련 보도 특성 연구가 필요하다.

V. 결론

주요 5개의 포털 사이트 뉴스 페이지에서 한약 및 한약재의 독성 및 부작용에 대하여 검색한 결과, 중복 제거 후 56개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긍정적인 기사 19건 중 14건이 의견기사와 인터뷰기사, 부정적인 기사 29건 중 27건이 보도기사와 해설기사였다.

부정적인 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발생 시점에 따라 유통 단계와 사용 단계로 나눌 수 있었다.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비해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기사가 더 많았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역시 부족하였다. 특히 한약의 부작용 문제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 부작용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연구하여 한약재와 한약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권상희, 김위근. 뉴스 웹사이트 이용자의 인터넷 저널리즘 평가 요인 연구.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2004; 14: 99-146.
2. 반현, 권영순. 포털 뉴스와 기존 뉴스 매체의 이용행위에 대한 상관관계성 연구. 한국언론학보. 2007; 51(1): 399-426.
3. 임종수. 포털 미디어 재매개에서의 뉴스 소비. 한국방송학보. 2005; 19(2): 8-46.
4. 이상현. 책임 다해 새로운 미디어로 발전해야: 다시 떠오른 포털 저널리즘 논쟁. 신문과 방송. 2005; 413: 160-163.
5. 안종묵. 인터넷 포털미디어의 저널리즘 특성에 관한 고찰. 언론과학연구. 2011; 11(1): 187-218.
6. 안종묵. 포털의 뉴스서비스 성격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2009; 20(4): 101-124.
7. 이창호, 이호영. 포털 이용자의 포털 뉴스 이용패턴 및 포털의 언론역할에 관한 인식. 한국언론정보학보. 2009; 46: 177-211.
8. 양선희.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의제설정효과: 신문, TV, 포털의 비교. 한국언론학보. 2008; 52(4): 81-104.
9. 장성운. 대학생들의 인터넷 의료정보 이용과 즐겨 찾는 인터넷 의료정보 연구. 순천향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0. 황성근. 글쓰기로 돈버는 자유기고 한번 해볼까?. 고양: 위즈덤하우스. 2009.
11. Henard DH. Negative publicity: What companies need to know about public reactions. Public Relations Quarterly. 2002; 47(4): 8-12.
12. 백왕순. 내일신문. 서울시내 한약재 관리 엉망. Available: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0025319>
13. 윤석만, 문화일보. 독성 한약재 관리 '맹탕'. Available: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212010309270950020>
14. 이동근. 뉴시스. '주사' 들어간 금지 한약, 불법 유통. Available: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view.html?cateid=1066&newsid=20070403073909543&p=newsis>
15. 송홍근. 주간동아. 중국산 불량 한약재, 가짜 원용(녹용)범람 보약도 마음 놓고 못 먹다. Available: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7&aid=0000003051>
16. 오승재. 세계일보. 시판한약 "중금속 범벅" 수은, 납 등... 코카인도 검출. Available: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61015000489&ctg1=01&ctg2=&subctg1=01&subctg2=&cid=0101080100000&dataid=200610151628000160>
17. 김윤중, 홍수영. 동아일보. 이번엔 '중금속' 中 한약재. Available: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10020147>
18. 박상남. YTN. 독성 한약재로 식품 제조. Available: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2&aid=0000069962>
19. 박주호. 국민일보. 한약재를 변비차로 속여 판매한 업자 적발. Available: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1272275541&cp=nv>
20. 민성빈. MBC뉴스. '독성' 지네 식품, 먹으면 안돼요!. Available: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631033_5782.html
21. 이선아. YTN. 엉터리 한약제조... 부작용 나면 "치유 과정이다". Available: <http://www.>

- ytn.co.kr/_ln/0115_201106171857268445
22. 김호철. 한겨레. 한약 무턱대고 먹다간 부작용 큰 코 다친다. Available : <http://www.hani.co.kr/section-009070004/2001/05/009070004200105241840005.html>
 23. 임호섭. 파이낸셜뉴스. 생약 '독성간염 유발' 논란. Available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4&aid=0000107302>
 24. 범현주. 내일신문. '한약과 간독성 상관없다' 논문 잇따라. Available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um=307134&tid=4&sid=E>
 25. 정희수. 국민일보. "한의사도 부작용 보고 안하는 실정". Available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0318342>
 26. 권선미. 메디컬투데이. 비만 치료제 복용 환자 60% 이상 부작용 경험 호소. Available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65939>
 27. 이에림. 국민일보. 한약과 양약 함께 복용 시 건강에 독 될수도. Available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43&aid=0000025682>
 28. 우원애. 이데일리. 다이어트 한약 주원료 '마황' 독성 확인. "취가 죽을 정도". Available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SCD=DH34&newsid=01571126596217432&DCD=A00710&OutLnkChk=Y>
 29. 심재익. 서울신문. 빈발하는 독성 간염 주의하세요. Available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1208022003>
 30. 김도환. 국민일보. 의료일원화특위 "한약재 안전성, 식약청이 밝혀라". Available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1938134>
 31. 송한진. MBN뉴스. 한약 부작용 설명 없으면... "한의사 책임". Available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456747&category=mbn00007
 32. 뉴스속보부. 매일경제. 한약 부작용에도 계속 복용시켜...결국 환자 사망. Available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121103>
 33. 이민영. 서울신문. 한약 부작용 마냥 방치. Available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305001007>
 34. 이석영. 의협신문. 위험한 한방...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Available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235>
 35. 박길자. 여성신문. '다이어트 한약' 복용 후 급성간염. Available : <http://www.womennews.co.kr/news/45937>
 36. 신은경. 국민일보. 살 빼려다 급성 간염?... 전화로 짓는 '다이어트 한약' 주의보. Available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43&aid=0000054218>
 37. 윤성중. 세계일보. [한방 돋보기]한약과 간독성. Available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2&aid=0000034541>
 38. 김양진. OSEN. 한약은 간에 나쁘다구요?. Available : <http://osen.mt.co.kr/news/view.html?gid=G0903230170>
 39. 고성규, 장병은, 최재선. 한약물의 ADR.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4; 18(4):957-964.
 40. 김동준, 안병민, 최성규, 손주현, 서정일, 박상훈, 남순우, 이자영, 김진봉, 오승민. 독성 간손상에 관한 다기관 예비연구. 대한간학회지. 2004; 10(1): 80-86.
 41. 윤여광, 한성수, 유재연, 주입산, 구분수. 장기간의 한약투여가 간기능에 미치는 영향

- 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한방성인병학회지. 2002; 8(1): 30-34.
42. 김동민, 김희권, 조성연, 김용석, 남상수. 1개월 이상 한약을 복용한 101명의 간기능 검사에 대한 후향적 관찰. 대한한의학회지. 2010; 31(2): 149-157.
43. 윤영주, 박재현, 백은경, 박재형, 정슬기, 박해모, 이선동, 신병철. 한약 복용이 간기능에 미치는 영향: 전향적 다기관 예비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9; 23(3): 715-722.
44. 이선동. 한약·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 부작용에 관한 보고체계 마련 및 활성화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보고서. 2007.
45. Drug-induced Liver injury network. Available: <https://diln.dcri.duke.edu>
46. Nin CT, Cheung WI, Ngan T, Lin J, Lee KW, Tat PW, Leung V K, Mak T, Tse ML. Causality assessment of herb-induced liver injury using multidisciplinary approach and Roussel Uclaf Causality Assessment Method(RUCAM). Clin Toxicol(Phila). 2011 Jan; 49(1): 34-9.
47. Dennis EE, Merrill JC. Media Debates: Issues in Mass Communication, White Plains: NY, Longman. 1996.
48. 김옥희. CNB뉴스. 다이어트 한약재 ‘마황’ 독성 확인...‘사망률 높아져’. Available: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148027>
49. 장인수, 양창섭, 황의형. 마황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과 비만 치료에 있어서 마황 사용 지침의 필요성. 대한한방비만학회지. 2007; 7(1): 23-29.